

# 대한산업보건협회 76년, 오송시대 개막을 알리다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이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격상됐다.

7월 첫째 주 월요일이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됐고,

7월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운영된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를 소개한다.





### 노동단체 시위 속에 기념식

2023년 산업안전보건의 달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일산 킨텍스에서 시작됐다. 7월 3일 기념식에는 백현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유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태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 노·사·민·정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개막선언에 이어 이정식 장관의 기념사와 산업재해 유공자 훈·포상으로 이어졌다. 기념식에 이어 주요 관계자들은 ‘국제안전보건전시회’로 자리를 옮겨 전시회 개막을 알리는 커팅식을 진행한 후 대한산업보건협회를 포함한 몇몇 전시부스를 방문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장 이곳저곳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20여 명이 이정식 장관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 강원센터 유재모 팀장, 국무총리 표창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산업보건센터 유재모 환경위생팀장이 2023년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26년 넘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유재모 팀장은 산업재해 예방,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문화 정착, 위험성평가를 통한 자율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 팀장을 포함한 18명이 유공자 훈·포장에 이름을 올렸다.



- 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2023년 산업안전보건의 달
- ② ‘국제안전보건전시회’ 개막을 알리는 커팅식
- ③ 기념식장 이곳저곳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20여 명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시위를 벌였다



## 협회, 스마트 보건안전교육 선보여

대한산업보건협회는 2023년 국제산업안전보건전시회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 76년, 산업보건 암흑기를 밝히다]와 [오송시대 개막, 스마트 보건안전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로 전시부스를 구성했다.

협회는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산업보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산업보건을 토대를 구축해 온 협회 역사를 소개하고, 오송시대에 펼쳐질 스마트 보건안전교육을 공개했다. 특히 협회는 밀폐공간 작업, 환기시스템, 심폐소생 등 교육에서 스마트기술을 접목해, 보다 쉽고 보편적인 보건안전교육의 미래 모습을 보여줬다.



## ‘사회적 화두’ 급식실 노동자 건강권 모색 세미나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은 7월 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급식실 노동자 건강관리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과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조리노동자 건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전문가 4명의 발표로 진행됐다. 류지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문제 및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급식실 노동자의 업무내용과 위험요인·유해요인을 짚었다. 류 교수는 인력충원·환기시설 개선·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정진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은 급식실 노동자 산재 신청 현황을 소개하고, 승인·불승인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부옥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팀장은 조리휴의 실체와 조리휴 측정 실태를 설명했다. 김 팀장은 조리휴 노출 노동자 건강 모니터링 결과와 조리휴 노출 수준을 줄이기 위한 작업환경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현철 (주)벤테크 대표는 조리실 환기 가이드를 설명하고, 이를 통한 개선사례를 소개했다.



## 보건관리·교육 우수사례 발표

7월 3일부터 7일까지 열린 2023년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에서도 대한산업보건협회는 보건관리와 교육 분야에서 그 우수성을 입증했다. 협회는 보건관리와 교육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다른 기관과 사업장에 전파했다.

협회 울산·천안·경기서부센터 보건관리팀은 7월 5일 '보건관리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 대상인 고용노동부장관상(울산)과 산업보건학회장상(천안), 안전보건공단 우수상(경기서부)을 각각 받았다. 또한 협회 교육개발팀은 7월 3일 '안전보건 교육훈련 경진대회'와 4일 '안전보건 교육훈련 경진대회'에 잇달아 참가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



- ④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백현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 ⑤ 2023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 국무총리 표창 시상식. 총 18명이 유공자 훈·포장에 이름을 올렸다
- ⑥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산업보건센터 유재모 환경위생팀장이 2023년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 ⑦ '급식실 노동자 건강관리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
- ⑧ 세미나 시작에 앞서 축사를 하는 백현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 ⑨ 7월 5일 '보건관리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 대상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한 울산산업보건센터